

개혁신학 산책 (Walking with Reformed Theology)

이상규 | 교회개혁으로서의 설교

황대우 | 최초의 개혁주의 윤리학자 마틴 부셔
(Martin Bucer, 1491-1551)

이신열 | 루터와 성경의 명료성

빌름 판 스파이커(Willem van 't Spijker)
| 마틴 루터와 성경의 인치심



교회개혁으로서의 설교

16세기에 일어난 교회개혁운동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교회의 개혁이었다. 개혁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교회'였고, 교회가 어떠한가 하는가가 그들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근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떠한가 하는가에 따라 교회의 기능 혹은 교회의 사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개혁자들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은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 없고 성경의 기초, 곧 사도적 교회의 특성을 상실한 변질된 기구라고 이해했던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불가피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는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사실에 있어서나 역사적으로 볼 때 더 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일본의 용례를 따랐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호주출신 선교사 왕길지(G. Engel)가 The Reformation을 '교회개정신사'(教會更正新史)로 번역했던 일은 흥미로운 일이다. 어떻게 개혁자들의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였고, 그들의 개혁운동은 한마디로 참된 '교회건설'이었다.

개혁자들, 특히 칼빈은 참된 교회 건설의 중요한 도구를 설교의 회복에 두었고, 설교는 근본적



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이었다. 말하자면 교회개신의 핵심을 말씀의 권위 회복에 두고(B. C. Milne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133; Paul L. Avis,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14) 설교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했다. 즉 설교는 교회개혁과 교회건설의 중요한 도구였다. 이 점은 청교도였던 존 코튼(John Cotton, 1584-1652)의 경우에도 동일했다. 코튼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하여」(*De Regno Christi*)에서 “영국교회는 교회의 표지를 회복함으로써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설교를 교회개혁의 수단으로 간주했다(오덕교, 『청교도와 교회개혁』, 204). 개혁자들에게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였기에 이를 ‘성경중심’(*sola scriptura*)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성경의 바른 설교를 통해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으므로 개혁자들은 ‘말씀의 신실한 전파’를 참된 교회의 표지로 인식했다. 이런 점에서 케임브릿지(Cambridge)대학의 피터 뉴먼 브룩스(Peter Newman Brooks)는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목회적 성경을 띤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칼빈은 신학자이기에 앞서 설교자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의 권위는 중요한 문제였고, 성경외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강조하여 성경은 하나님 인식과 신학의 유일한 원천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이 루터보다 더 철저했다. 이 점은 전통(tradition)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견해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을 지닌다”고 보았으나,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보아 전통을 폐기했다. 그 결과 루터교회에는 여전히 로마교적 잔재가 남아

칼빈은 신학자이기에 앞서 설교자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의 권위는 중요한 문제였고, 성경외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강조하여 성경은 하나님 인식과 신학의 유일한 원천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이 루터보다 더 철저했다.

있으나 개혁교회에는 로마교적 잔재를 말끔히 씻어버릴 수 있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루터교회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이루었고, 바로 이런 점에서 베인톤은 “개혁주의는 루터주의를 다시 개혁했다.”고 말하고 “개혁(Reformed)이란 종교개혁의 개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Bainton, *The Age of the Reformation*, 39). 어떠한 개혁자들은 성경을 강조하였고, 진실된 말씀의 증거를 참된 교회의 중요한 표식으로 삼았다.

현재 남아 있는 칼빈의 설교목록은 약 2,050편인데, 그 중에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 571편, 신약이 397편이다(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295).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식(*signum*)으로 말씀과 성례를 말했는데, 이 점은 루터란과 다르지 않다. 루터는 하나님의 올바른 선포만 강조했지만, 칼빈은 말씀의 바른 선포만이 아니라 청중도 올바르게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루터란과는 달리 바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청중은 성경강해와 설교를 경청하고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선포가 되도록 듣는 귀를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의 설교가 때로 ‘연설’ 혹은 심한 경우 시사 평론으로 왜곡된 것은 바로 들어야 할 청중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칼빈적 해석이다. 교회 개혁과 쇠신을 위해서는 설교자의 책임 못지않게 청중에게도 책임이 있다. 청중은 설교의 바른 선포를 위해 파수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